# "기술유출" vs "증거있나"… 정면충돌에 재계 우려

〈LG화학〉

〈SK이노베이션〉

### SK-LG 분쟁

❸ 양보없는 싸움, 파국 치닫나 〈끝〉

#### LG화학

"기술유출 인정, 재발방지 약속땐 소송전 접고 전면대화 나설 것"

#### SK이노베이션

"경력직 공채에 LG 경력자 몰려 기술유출 사실·증거 없었다"

'이차전지 기술인력 빼가기' 분쟁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CEO간 회동이후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소송전을 지속할 분위기다. 그룹 총수나 정부가 나서기에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끝장'을 볼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 장은 1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 다. 공식적으로는 대화 내용이 알려지 지 않았지만 회동 이후에도 양사 모두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상황이다.

채 <del>용공</del> 고		HOME   SK Careers   채용광고
	<b>결정</b> 이 넘치는 기다립니다	
전체 🔻 ALL	▼ 바로가기	모두 첩기 5
[SK 이노베이션] Batt	ery 엔지니어 경력사원 채용	
[SK 이노베이션] Batte	ry 엔지니어 경력사원 재용	
• 공고번호	R1711D160002	
• 채용인원	OB	
• 고용형태	정규	
· 채용유형	강력	

2017년 SK이노베이션이 공고한 경력 채용.

/SK커리어 캡처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 어졌다는 추측에 힘이 실렸다.

'화해의 열쇠'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이 쥐고 있다. LG화학은 SK이 노베이션이 자사 기술을 빼돌렸음을 인 정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소송전을 접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산업계에 지식재 산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소송 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며 "SK이노베 이션이 기술 유출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와 보상안을 제시하는 게 대화의 첫번째 전제 조건임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기술 유출 사실이 없었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L G화학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핵심 인력을 빼돌렸다는 주장에 'SK커리어' 채용 공고를 제시했다. 모든 경력 직원을 공 개적으로 채용한다며 LG화학 주장에 반박했다. 헤드헌터를 이용한 물밑 접촉 등 사안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화학 출신 지원자가 1000명에 달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LG화학은 상대적으로 업계 에서 처우가 나쁜 것으로 잘 알려져있 다. 공시를 보면 LG화학은 평균 연봉이 6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SK이노베이션보다 절반 가까이 적은 수준이다.

LG화학이 어떤 기술을 빼돌렸는지 를제시하지 못하는점도 문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수주 잔고가 불과 3년여만에 14배 이상증가했고, 연구개발 비용도 자사와 비교해 훨씬 적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든상황이다. 구체적인 기술이 밝혀지지않으면 기술 유출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게 SK이노베이션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이 입사 원서에 주요 영업비밀을기입하도록유도했고, 입사 지원자들이 조직적으로 핵심기술 문서 를 다운로드했다는 정황은 비교적 구체 적이다.

실제로SK이노베이션은이날LG화학이 지난 5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형사고소한건으로압수수색을받기도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대상이 SK이노베 이션 회사가 아닌 전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밀 유출 혐의에 따른 조치로 전해 지면서, SK이노베이션의 조직적인 기 술 유출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어떤 기술을 유출했는지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라입장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경력 공채에 LG화학 출신들이 워낙 많이지원하는 만큼 특정 인원을 타게팅할필요도 없었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송전에서도 양사 모두 자신감을 드러내며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LG화학이 특허수가 훨씬 많다며기선 제압에 나섰지만,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질이 더 중요하다며 정면 대응했다

일각에서는 총수가 직접 나서서 해결 해야한다고 방안을 제시했지만, 계열사 간 다툼에 그룹 총수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각 그 룹사도 아직은 계열사 판단에 맡겨둔다 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에서 나서면 안 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면서 그룹이나 정부도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이라며 "결국 누군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소송 전으로 끝장을 봐야하는데, 결국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국가적으로는 큰 타격 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회사 아이원스를 방문해 생산설비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 은성수, 취임 첫 현장은 '소·부·장'

"전용펀드 조성, M&A 등 통해 금융지원, 기술력확보 도울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업 현장으로 17일 소재·부품·장비(이하소·부·장) 업체를 찾았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지원은 물론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이른바 '소·부·장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은위원장은 금융이소·부·장 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미에 스스로를 '소·부·장 위원장'으로 불러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위원장은이날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아이원스를 방문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간담회'를 갖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우리 경제와산업의 기초 체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부·장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이원스는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제조회사다. 이날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 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산업계, 학계가 모두 참석했다.

은위원장은 "재정·정책금융기관·민 간 자금을 바탕으로 우리 소·부·장 부 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 용 펀드, 가칭 '소·부·장 펀드'의 조성 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 영돼 있다"며 "해외 인수합병(M&A)· 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를 통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일본수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는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난달5일부터 5주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일본 수출규제 연관기업 등에 대해총300건, 539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집계됐다.

은 위원장은 "금융 부문은 대일 의존 도가크지 않는 등 수출규제 영향이 제한 적이지만 향후 진행추이를 예의주시하 며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 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경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 응해 확고한 금융 안정도 지켜나가겠 다"고 밝혔다. /알쌍미 기자 smahn1@

## IPO 큰장… 롯데리츠·한화시스템 등 대기

올 상반기 상장기업 2곳 불과 "내달 투자심리 일부 회복될 듯"

올 하반기 대어급 기업공개(IPO)가 예고되면서 관련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롯데리츠와 한화시스템, 지누스, 녹십자웰빙 등의 공모 예정액만 수조 원으로 추산되면서 IPO 투자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지 기대를 모은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롯데리츠가, 24일에는녹십자웰빙이 각각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또 지누스와 한화시스템의 청구 접수도 완료된 상황이다. 대규모 공모청약이 이어지면서 IPO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올해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수는 단 2곳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코스피 상장사가 연평균 7~8개였다는 점을 감 안하면 올해 IPO시장이 부진했다. 올 해 상장한 기업의 시가총액도 3000억원 에 못 미친다.

하지만 지누스의 상장심사 승인이 이 달내로 마무리되고 롯데리츠와 한화시 스템이 내달 상장하면서 IPO 시장 규모 가 확대돼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우선롯데리츠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격을 확정한 뒤 일반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8598만4442주로 주당 공모희망가는 4750원~5000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약 4299억원을 조달하며 조달된 공모자금은 롯데쇼핑으로부터 매입할 리테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활용한다. 투자 대상은 롯데쇼핑의 백화점 4곳, 마트 4곳, 아울렛 2곳이다. 총감정평가액만 약 1조 4900억원에 달한다

지누스도 코스피시장 최대어 중하나로 꼽힌다. 지난 2005년 자본잠식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지누스는 캠핑 전문 업체에서 매트리스 전문 기업으로 주력사업을 변경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현재 시가총액은 9984억원이다. 올 상반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연내 상장 계획을 약속한 만큼 IPO를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한화 시스템도 내달 상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52.91%), 에이치솔루션 (14.48%)이 3대 주주로 있다. 에이치솔 루션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제 3 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증권 가에서는 한화시스템이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헬스케어전문기업녹십자웰빙은최 근 세계 최초로 암악액질 치료제인 혁 신 신약 'GCWB204' 개발에 성공해 투 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해당 신약은 현재 유럽에서 임상2상을 진행 중이다. 녹십자웰빙은 이달 수요예측을 거쳐 내 달 1~2일 공모청약 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계획이다. 공모예정가는 9400~ 1만1300원으로, 기업가치는 최대 2000 억원대에 달한다. 공모예정금액은 423 억~509억원이다.

이소중 SK 증권 연구원은 "침체된 IP O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 대어급 종목들의 공모청약이 필요한 때"라며 "10월 대규모 공모청약으로 IPO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모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IPO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마약류 밀반입 5년간 2337건, 1.4조

대마 737건, 필로폰 515건 등

최근 5년간 밀반입 된 마약류가 1조 4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7일심재철자유한국당의원이관세

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은 총 2337건이다. 액수로는 시가 1조4315 억원이다.

마약류 밀반입 적발은 2015년 358건 (2140억원), 2016년 423건(887억원),

2017년 476건(880억원), 지난해 730건 (8708억원)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350 건(1700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밀반입 된 마약류를 종류 별로 보면 대마가 737건으로 가장 많았 다. 이어 필로폰이 515건, 엑스터시(M DMA)가 182건, 코카인이 56건으로 뒤 따랐다.

/석대성 기자 bigstar@